

宗 教 論

(계속)

朴 亨 龍

九、異教의 失敗

既叙의 諸條는 世界諸宗教의 現象을 考察하여 決定한바 宗教의 本質의 要素들이다. 宗教로서는 此等本質의 要素들을 欠缺하고는 그固有의 職能을 發揮하기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許多한 異教中에 此等諸要素의 何者든지 充分히 圓滿히 所有한 者는 없다. (1) 超越界의 關說은 모든 異教에 共通하나 그 神觀이 或은 汎神論에 或은 自然神論에 호르며 或은 多神教에 或은 萬有精神教에 墮落하여 있다 印度教의 深奧와 佛敎의 玄妙를 가지고도 汎神과 多神을 發見하였을 뿐이며 回教는 唯一神·拜火敎는 最高神을 믿으나 그 屬性들이 人間의 宗教의 要求를 解答하기에 不適當하다. 唯一人格의 神에 超越性과 內在性은 兼備하고 모든 屬性을 具備한 無限完全의 神觀은 異教中에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다 「아지못하는 神의 壇」에 禮拜를 드리고 있다. (2) 禮拜은 모든 異教에 共通하여 此를 行치 아니하는 곳이 없다. 마는 異敎의 禮拜는 神과 人과의 真正한 交涉을 可能케 하는 者 없다. 그 劣等者는 呪術의 行爲나 偶像崇拜에 不適當하고 그 高等한 者라고 神祕的 默想을 耽樂할 뿐

이다. (3) 또 異敎의 道德은 低劣하다. 宗教가 흔히 不道德을 容認할 뿐 아니라 聖化하기도 하였다. 神話는 異敎의 道德의 墮落을 獎勵하였다. 세바카(Servant)는 주피터等에 關한 多數神話에 言及한 後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런 實有들을 神으로 믿으면 그들의 犯罪時에 羞惡之心이 除去되는 外에 아모 結果도 없었다」고 하였다. 「異敎神中에는 聖潔을 그 屬性으로 한 者 많치 아니하고 劣惡한 者들이 不少하다. 神이 어더하면 그 百姓도 그러하다」 「自然의 宗教들」은 慘酷한 不道德을 產出하였고 此를 禮拜儀式의 一部로 삼기까지 하여 人祭와 生殖器崇拜와 神堂淫行의 施行되기에 나름 것이다. 이 狀態는 어떤이들 로 하여금 「異敎에 大概로는 宗教와 道德사이 에 認定된 關聯이 없다」는 過度하고도 峻烈한 斷案을 내리게 한 것이다. (W. St. Clair Tisdall) 그中에 高等한 宗教들이 高尚한 思想을 말한 것이 없지 아니하나 그 理論體系를 全體의 으로 考察하면 不完不具 乃至 矛盾이 充滿하였고 信徒의 生活에 關하는 實際의 効能에 있어서는 더욱 可觀할 者 없는 것이다. (4) 異敎의 罪意識과 救援觀도 其宜를 得한 者 없다. 印

度教과 佛敎에서는 因果應報의敎理를 強調하여 善行이나 惡行이나 行爲마다 반드시 相當한應報를 今生이나 來世에 받는다고하나 汎神論 或 無神論을 背景으로한 이만치 그罪意識이 深刻하지 못하며(釋迦는罪意識을 갖지 아니하였다는 批評이 있다) 克罪의 努力이不無하나 成功이 없고 赦罪의 方法은 敎示되지 아니하였다. 苦行難行이나 念佛冥想으로 죄가贖하여질바도아나오 克服되기도 어렵다. 그들의 救援이란 罪와 靈의死亡으로부러의 解脫이 아니라 人間苦痛으로 부러의 赦免이다. 釋迦는 祈禱와 贖罪의思想을 否定하였다. 罪惡은 宇宙의의 것이 오個人的의 것이아니라 物質世界에 固有한 것이오 暫時的의 存在者에게는 不可觀의 것이라하였다. 그리고 人이犯罪하면 그罪에付着된 刑罰은 必然으로 出來하는 것이오 毫도免除는 없었다. 異敎中에 가장 罪惡問題를 嚴正히 解釋한다는 回回敎도 神法의 故意的違犯만이 罪오 人間の 先天的惡性이란없다하며 그敎祖自身の 歷史에 爲先 羞恥스러운醜惡이 許多하였다. 그리고回敎는 救援의 方法으로서 神愛 神赦의 言及이 아모것도없고『神外에無神이오 모하멜은 그의先知者라』는『갈나마信條의 重言復言과 每日 五回의祈禱와 救濟와 禁食과 메카巡禮等이條件으로 되어있을뿐이다. 此外의 諸異敎中에도 罪와 救援의問題를 正解한者없다. (5)來世觀에서도 異敎는 失敗한 것이다. 人의心靈이 輪廻轉生을經由하여 『바람』에 併

呑됨으로 人格의 存在를 遺失하는 것이나(印度的)修行을 차아 涅槃의 完全한滅絶을 取함은(佛敎)厭世主義로 充滿한 印度人의心理에 歡迎되었으나 生의永續을 憧憬하는 一般人類의人望을 얻지못할來世論이다. 他方에 天堂을快樂한 狩獵地로보기나(北米土人) 肉慾의放縱所로보기나(回敎) 하는것은 人間의靈的要求에 逆行하는 提案이다. 純深 高尚 神靈한 來世의觀念은 異敎의想像에 드러오지 아니하였다. (6)實用性은 宗教의眞僞를 檢試함에重要한標準이나 于今 歷史에出現한 異敎는이檢試를 通過할者없다. 印度敎는 印度에 授益보다도 貽害한 것이 尤多하니와 보다優勝한 儒敎도 東亞諸國에 一時如干한 社會的感化를 주었을뿐아나오 이제 老廢하여 閑座하여있다 回敎는 西亞와北亞같은 未開人의地域에 社會指導의勢力을 갖고왔으나 世界文化의 推進級을 하기에는 너무나幼稚하고 無能한 것이다. 要컨대 世界가 要求하는 高等文化의 善實을結하야 그自體의善樹임을 自證할宗教는 異敎中에 發見되지 않는 것이다.

諸異敎의信仰과 行習은 宗教의本質이 何何임을 決定함에 有力한證左를 提供한다. 그러나 異敎中에 宗教의本質을 圓滿히具備한者 一無하야 一般의失敗에 終末을 告한事實을 우리는 考察하였다. 此를 他語로述하면 人力에依한諸宗教는 人間固有의宗教性에 依하야 前記諸要素를 宗教의本質로 提示함에 足하나 그것들의理想的的實

現을爲하여서는 力不及한 것이다。於是乎 어떤神啓 天來의 宗教는 緊急히 要請되는 것이다。

第四章 宗教의 起源과 過程

人類는 恒常 또는 不可治的(Incurably)으로 宗教生活을 經驗하여왔다는 것은 考古學과 人類學의 評決이다。石器時代의 棲息所이든 洞穴의 壁上에 粗厲한 繪畵가 宗教의 意味를 갖었다。死者의 墳墓들은 커 太古人들의 來世信念을 證據한다。宗教는 發見된바 最高記錄(考古學又 人類學的)만치 古代的인 것이 確實이 알라졌다。그러나 宗教가 如何이 起源하였으며 如究한 過程을 밟아 나왔느냐하는 問題는 자못 難解한 것으로서 研究者들의 對答이 不一하다。今日 多數의 宗教哲學者들은 宗教의 進化的 起源과 過程을 溯考하여 아모리 高等한 宗教라도 野蠻 未開人의 迷妄에서 出發하여 悠久한 發達을 遂行한者라고 본다。이것이 事實이라면 人間의 宗教的才力이란 그自體에서 裕足하여 獨自的으로 能히 宗教의 理想을 完成할 것이오 他力의 協助을 要치않을 것이다。前項에서 既述한바 諸異敎가 宗教의 本質의 要素를 圓滿이 갖인자없이 全般의 失敗狀態에 있는 것은 참으로 奇異한 것이다。다른 宗教의 進化的 起源과 過程을 溯考하는 所謂 進化論은 事實上一部人士들의 根據薄弱한 假設의 理論뿐이오 一般의 承認을 得은 歷史의 報道가 아니다。他方에 人類의 宗教는 人類의

自力만으로 起源하였을수 없다는 또는 人類의 自力에 依하여 宗教는 進步的 過程보다도 退化的 過程을 밟았다는 見解가 相當이 堅實한 勢力을 擁하고 있는 것이다。(一) 宗教의 起源은 野蠻未開人의 迷妄妄想에서 發見된다고 하여 恐怖니 萬有精神이니 庶物崇拜이니 하는 多數의 臆說이 提出되나 모다 空論에 不遇한 것이다。(二) 恐怖說 들크레디어쓰, 호메쓰, 옴, 스트라우스, 클로프, 루복(Lucretius, Hobbes, Hume, Struss, Clodd, Lubbock) 등의 諸人이 宗教를 恐怖의 産物이라고 說明하면서 自然의 不可抗力의 앞어 裸體로 戰慄하는 原始人은 火燭과 地震, 風雨와 猛獸等 무릇 自身을 傷害하는 物件이면 그어떠한 것을 勿論하고 다 神化하였다고 하였다. 맑스主義者로써 神信念의 物質的 起原을 探求하는 엥겔스도 社會的 諸權力이 活動을 開始하기 前에 自然界의 諸勢力이 人間의 頭腦에 反映하였다고 即人의 自然에 對한 恐怖가 神信念을 產出하였다고 한 것이다。(三) 그러나 恐怖의 性質로부터 論할 것이면 未開人은 恐怖의 對象인 神을 忌憚하여 遠避하기를 努力할러인데 도로혀 交際하여 親愛의 情을 맺으려한 것이 何故일까? 種族들中에서 만이 아니라 印度와 希臘에서도 最古形의 祭祀들은 神들에 對해서 懺心과 交際의 觀念을 表現하는 和睦祭와 燔祭이었고 恐怖나 畏縮으로 因한 것이 아니었으니 是何故일까? (四) 古代 宗教들이 殘忍하고 劣惡한 神들과 함께 仁愛하고 慈悲한 神들을 認定한事實을 恐怖說은 如何히 說明

하러는가? 이事實은아리안(Aryan)諸族과 支那에서 神
 을가장普通으로 天이라고 名稱함에 暗示되었다. 蒼天은
 或時的 暴風雨와 雷電으로 地面에 傷害를 주는것보다도
 雨露와 日光으로 그것에게 賜福하기를尤多히한다.

(2) 萬有精神說(Animism). 未開人の想像으로부터 宗教意
 識의發現이 있었다고解釋한이는 스펜철이었다. 彼の解釋
 에依하면 原始人은 生死의區別을 疑問하고 色色의 想
 像을 呈한結果 靈魂과肉體라는 二元이 存在한事를 推
 測하고 人生은內的인 靈魂의我와 外的인 肉體의我인二
 者에分한다고 思惟하였다. 그리고 原始人은 夢事와 顛
 癩과 影子와 絶等の 實例에微하여 上叙의信仰을 鞏固
 하여 一方으로는 靈魂 或은 生氣가 萬象속에 充滿하
 야 人生의運命은 靈魂의主掌하는바라고 信함에至하였다
 이信仰의眼目으로보면 日月星辰도 山川草木도 鳥獸魚介
 도다 崇拜의對象이 되지않는것없다고한다. 마는 『애니미
 즘』(萬有精神說)은 (1)自我意識發現의次序를 誤解한다.
 今日 近全數의 心理學者들은 自我의觀念을 人間意識에
 한 靈的成分으로 認定하는바 그것이 없이는 意識의經驗
 이 不可能함은 그것이 사람의 多樣의感覺的知覺을聯合
 함으로써이다. 人의 自我의觀念을 影子나 夢事로부터 얻
 는다고말함은 精神成長의 全秩序를轉倒함이다. 人은直
 覺의으로 自己의身體及外界物과 判異한 思惟原理로시
 의 內面的 自我를 認識하기때문에 幽靈을믿으며 夢中

의所視를 死友의魂魄으로 믿게되는것이다. 그는 自己의
 人格意識의 名辭로써 生과自然만을 解釋하는것이오 自
 然의名辭로써 自己를 解釋하여 自我를 發見하는것이아
 니다. (2) 『애니미즘』은 原始人을 四歲兒만도못한推理力의
 所有者로取扱한다. 그는 意欲하며 動作하는 動因으로서
 의 自己나 因果의原理나 生物無生物의差異나 夢事나 覺
 醒意識의 區別의意識을 갖지못하였다고한다. 그러면서도
 그白痴가 色色의 推理를通하여 影子와 夢事같은 純外
 面的感覺으로부터 前記와같은 靈的概念들을引出하고그
 것들로부터 모든 直覺들(神觀念을 그중에包含하는)을
 構造하여 썼다고한다. (3) 夢中에본 死者의靈이 子孫의
 禍福에 關係하는줄로 推想되야 家族神이 되고 다음에 種
 族神이 되고 또그다음에는 그의人間人格의觀念이 消失되
 야 全能全智神으로 推尊되게되었다고 스펜철은 說明하
 였다. 마는 어떤 個人의夢中에 본 亡靈을全種族의 神
 으로 崇拜하기까지에 나르는理由는 그렇게容易히說治될
 것이아니다. 種族의各員이 同一한夢事를 經驗치않는다면
 亡靈의神化가 可能할가? 萬一 亡靈의神化가 事實이라
 면 그種族各員은 이미 社信念을 갖고있었을것이다. 그
 들은 自心內에있는 先人觀念으로써 夢事를 解釋할수있
 어도 夢事로써 新觀念을 만들어 全種族의 共同所有를
 만들기 어려웠을것이다.

(3) 庶物崇拜說(Fetichism). 佛國實證論者 어거스드·콘트

는主張하기를 文明發展에 神學的、形而上學的、實證的或 科學的의 三期가 있고 神學期에 庶物崇拜、多神教、唯一神教의 三期가 있었다고 하였다. 最初의 庶物崇拜은 人的野蠻狀態에서 自然物體들을 自己에게 加害할能力이 있는 것으로 看做하여 如字의 意味로 崇拜하여서 始作하였다 고 하였다. 그러나 庶物崇拜가 宗教의 起源이 되기不能하나 그것은 宗教的情緒의 一表白뿐으로서 高等하게 發展된 神觀念들과 聯結되어 있음으로써이다. 『페디쉬』라는 말의 歷史는 이 理論에 對한 反答을 暗示한다. 그 말은 佛國學者들의 推測한 바와 같이 阿弗利加語가 아니라 葡萄牙語『페디쉬』(Feido from Facinus)로 轉訛하다. 그것의 佩수의 礫像(Graffix)이나 珠數(Beads)같은 어떤 種類의 敬虔助物이든지 意味하였고 古船夫들이 그 말을 黑人的粗厲한 彫刻에 應用하였다. 萬一歐洲의 로마教徒가 崇拜함이 없었더라면 應用하였을진대 精神單純한 黑인들이 同樣으로 『페디쉬』를 携帶하였을진대 禮拜에 使用치 못하였을 것이 무언인가. 또 『페디쉬』說에 對한 最善의 反答은 그것이 宗教의 起源을 明示치 못한다 함이니 그것은 宗教에 基礎가 되는 神觀念이 如何이 發生하였다는 것을 說明치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맥스·뮐러가 批判하기를 『萬一한 小兒가 自己의 猫을 携來하여 그것이 脊椎動物物이라고 말하거나 最初로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小兒孫가 어떻게 脊椎動物物이라는 名稱을 얻어 드리는 가할 일 것이

다. 萬一 庶物崇拜者가 一塊의 石을 갖이고 와서 그것의 神이라고 말할 것이면 우리의 問題는 同一하니 어대서 데가 입즉 神을 드렸으며 이런 名稱으로 너는 무엇을 意味하느냐 할 일 것이다. 古代 宗教의 著書家들이 그 難關을 일파나 袞개 득진함을 보게 됨은 참으로 奇異한 일이다.』
 (4) 토렘崇拜(Totemism)說. 佛人 돌케임(Durkheim)의 『토렘』은 群團의 象徴이요 宗教는 起原에서 社會的이라고 하였다. 토렘崇拜의 社會的 意識 宗教의 起源을 찾았다. 彼의 著書 宗教生活의 根本形態에 徵한즉 宗教란 것은 神聖한 것의 社會를 結合시키는 信仰과 行爲이어서 個人의 感情에서 나오지 않고 社會生活의 意識으로부터 發한 所産이다. 社會가 古代에는 絕對的 生命全權을 握한故로 社會生活은 神聖不可侵의 것 社會即神이었다. 따라서 宗教意識의 起原은 社會意識의 起原에 求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理論은 社會意識의 威力에 奪魂되며 個人의 精神을 너무 無視한 誤論이다. 할킨스教授는 이 理論에 對하여 批評하기를 『佛人의 理論은 사람의 個性으로 思考하지 않는다고 하여 個人的 智力이 안 없는 것이오, 結局 모든 宗教思想은 그 全部가 社會的이라고 主張하기를 踰越치 않는다』 토렘論은 群團의 心を 『絕對強壓의』이 되게 한다고 하였다(E. W. Hopkins: "Origin and Evolution of Religion", 1923). 토렘崇拜의 宗教의 起源을 찾는 者는 羊인히브리人的인 토렘動物物이었던 것이니 踰越節儀式의 그 證據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

나 그것은 指鹿謂馬格이臆說에 지나지 못한다. 그 까닭은 토람崇拜이 있어서는 토람動物을 神聖視하는 것이 原則인데 히브리인의 踰越節에는 조곰도 그런意味가 包含되어 있지 않다.

(5) 呪術說. 프레이젤 (Sir J. Y. Frazer) 은 其著書 "Golden Bough" 第二版에서 呪術의 失敗로 宗教가 나타났다는 說明을 試하였으나 呪術의 不信任이 宗教의 發生을 促하기는 萬無하다. 宗教와 呪術이 不絶히 共存하다가 宗教가 漸이 墮落하여 呪術方面에 向한다. 또 說明의 方式을 變하여 말하기를 呪術의 體系에 모든 原始種族의 行動과 思想方式이 優勢를 占領하는데 이 呪術의 體系로부터 一群의 觀念들과 習慣들이 자라나와 宗教를 形成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宗教의 心理的性質에 呪術이 說明치 못하는 것이 있으니 即兩者의 立場이 大不相同함이다. 宗教의 主旨는 依賴오 呪術의 主旨는 管轄이다. 前者는 信恃의 態度를 激勵하고 後者는 自我主張을 鼓舞한다. 우리가 宗教를 呪術로부터 引出하기 不能함은 宗教는 最初부터라도 人類의 精神에 相異한 種類의 經驗을 反映함으로써 이다. 宗教와 呪術은 同等으로 原始的인 이오 其一이 他一로부터 引出된 者아나나 (Galloway; "Philosophy of Religion") 아나 宗教와 呪術의 最初부터 并行하였다고 보아도 呪術은 宗教의 生子라 함이 될 可임의 反對論이다.

(6) 詭計說. 宗教란 政治家가 人民을 治理하기 爲기하려고

便宜를 爲하여 製造한 方便에 不過하다. 아나 그보다도 利己主義의 祭司들이 人民을 抑壓하려는 詭計로써 案出하여 낸 것이라고 云云한다. 古代 印度人 唯物論者도 宗教는 利己主義祭司들의 創造이었다는 意見을 辯護하였고 二千年後에 톨렌드 (Toland) 가 此를 主張하였으며 特히 十七世紀의 벨레어가 此를 豪語하였다는 詭計說은 歷史의 事實을 全然無視하고 壓制政治家를 斬可키하는 刀劔의 餘力이 宗教에 及한 類도서 吊實에 遠在한 것이다. 設或 宗教가 政治家의 詭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宗教를 信奉하며 宣傳하여서 社會를 結束한 人間意識은 果然 무엇이 있었는가? 詭計說은 毫厘도 이 消息을 解釋하지 못한다. 況且 宗教는 宗教家의 詭計라는 說明같은 것은 徒히 詭辯을 弄함에 不過한 것이다. 祭司라는 말은 發展된 宗教制度에 包含된 것인즉 前者는 後者의 產物이오 그 創造者가 아님이 明白하다. 祭司가 宗教를 自己의 興味에 맞도록 修正해보려고 努力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創造하지는 못한다. 赫爾·스펜셀의 이 詭計說을 反對하였다. 人工의 起源(宗教의) 假設은: 事實을 說明하지 못한다. 이것은 宗教의 信仰의 어떤 要素들은 形式的인 모든 變動下에서든 依然히 持續함이 何故인지 說明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찌하여 時代時代의 激憤의 批評이 特殊한 神學的教義들을 破壞하되 그 教義들의 基礎가 되는 根本의 概念은 破壞하지 못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한다 이것은 國家의 信條들이 그 周圍에 集積된 弊害와 腐敗로 인

하야 一般的 不信任에 더러지고 結局 冷待아니면 積極의 拒否를 當하게 되는 그것들의 再肯定(同)形式으로 가아나면 오히려 同一本質노는되는 可驚情狀의 解答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如此이 宗教의 觀念들의 普遍性, 相異한 原始種族들에서의 그것들의 獨立의 進化, 그리고 大活力은 다습하야 그것들의 源泉은 반드시 深在할 것이오 皮相의 아 아니라 그것을 보려준다(First Principle 34). 이 詭計說은 今日 思想家들중에 信任을 잃었고 實上 溝跡 하여 버린 것이다.

宗教의 起源을 未開人의 迷妄에 探求하는 理論은 얼마든지 더 있으나 事實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 합킨스教授는 그 著書 『宗教史』의 初章에서 宗教史는 宗教起源의 理論을 樹立함보다도 事實들을 提示한 것이라고 宣言하고 "우리는 宗教가 植物成長神의 崇拜에서 起源하였다는 만하트(Manhardt)의 假設도 祭祀가 聖餐宴會로 始作하였다고 하구 라벌스·스미(Robertson Smith)의 見解도 모두 神들의 力量의 職能의 權力들(Functional Powers) 職能上 個個의 事實에 支配干涉하는 分能神들이었다는 우세발(Usener)의 觀念도 토렐崇拜에 관한 프레이젤(Sir J. G. Frazer)의 變勤無變한 解釋과 밀 救贖의 弑逆으로 始作한다는 論辯도 理論으로서 討議하지 않았다"라 하였고(E. W. Hopkins, "The History of Religion" 1918).

宗教의 起源으로 未開人의 迷妄乃至 詭計에 發見하는 上

述의 諸理論은 主로 無神論者들의 所說로서 宗教의 價値를 低減하여 버리는 消極的 効能을 가진 것들이다. 우리는 有神論者들의 信任을 最多히 받는 宗教起源論에 贊意를表하고 採用하려 한다. 그것은 일즉 『神觀念의 由來』의 章下에 論議되고 是認的 結論을 나린 것이니 卽 神知識의 起源은 啓示的, 直覺的, 理論的이라고 한 것이었다. 人類의 始祖와 選民에게는 超自然의 啓示가 神知識을 紹介하였을 것이오 그餘波가 世界多數民衆에게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世界萬民中에 生得의 直覺的으로 神信念을 가지게 되는 것도 多數할 것이오 理論의 過程에 依하야 그것을 取得한者也 또한 不無할 것이라고 吾人은 結論하였다. 一三 者를 合하야 同一한 宗教의 起源에 客觀的 主觀的의 兩方面이 包含된 것으로 보는 더욱 合理하니 卽 原始의 客觀的 神啓示가 人에게 臨할 때에 人은 主觀的으로 宗教性을 가져서 直覺或은 理論의 幫助로 그 啓示를 接受한 것이라고 함이다. 이러한 宗教起源의 見解는 一方에 人의 宗教性을 確認하고 他方에 其才量의 制限을 暗示하야 宗教의 眞理의 闡明의 超自然의 啓示를 要請하는 것이다. 人은 不可治的으로 宗教의 이다. 그러나 그才量은 有限하야 오직 外來의 啓示를 기다려서만 神과 其他 모든 靈界事를 知識할 수 있는 것이다.

(二) 宗教의 過程, 人類와 起源을 같이 한後 人類와 生存을 같이 하여 나려온 諸宗教가 밝은 過程의 如何하였느냐. 近

代學界에 進化의觀念이 高調된結果 人類의宗教는 어떤 一定한法則下에 進化하여 幼稚未開한禮拜로부터 宇宙에 關한 哲學의考察에 發達한다는 宗教進化論이 發生하였다. 그리하여 科學의이라는 美名下에 諸宗教를 進化의 邊界의次序로 分類하는것은 一種의流行을 일으켰다. 랭과 리본스 등이 進化論의立脚地에서 宗教를分類하였고 리얼리즘은 『大英百科全書』에서 宗教를 原始의自然論과 『에니미스』과 國民의多神敎와 儀式的宗教와 普遍的宗教에 分하였다. 헤겔은 宗教를 分類함에 있어서 科學의基礎를 標榜하지 않고 全히 哲學의原理에 依한다하면서도 進化의次序에從하여 宗教發達の 第一段을 自然的宗教라稱하고第二段을 靈的 個性의 宗教라稱하고第三段을 絶對의宗教라 稱하였다. 宗教를 進化의次序에依하여 分類하는人들은 劣等宗教와 高等宗教의間隔을 連續하며 架橋함에 技巧을極한다. 길노케이는 그의著書『宗教哲學』에서 宗教를 三分하여 種族的 國家的 世界的으로하고 其進化的過程을 巧妙說明하였다. 彼の解說에依하면 未開種族들의 宗教는 崇拜의對象이 不明確하고 祈願의目的物이 卑劣하며 그 思想과 生活이 迷妄妄想的의支配를받았다. 그러나 或時는 共通한敵을對抗하기爲하여 隣近諸種族의 團合한結果로 或時는 強大한 一種族이 他諸種族을 合併한結果로 國家生活이 實現되고 따라서 여러宗教가 併行하게 되는데 그 여러宗教는 混合과同化를經驗하며 其中에優勢者

征服者의宗教는 弱小民, 被征服民의歸依를 主張하였다. 그리고 漸長하는 國家的의識은 國家的의 宗教를 創造함에 主 要勢力이있으니 國家的의目的과 價値들은 性質上粗雜하고 範圍와目的이 地方的인 種族的의宗教를 通하여서는 適當한表現을 發見하기 不能하였다. 此個性的의이오 더擴大된 版圖를가진 神들의必要가느껴졌다. 그래서 以前 種族的의 宗教에서오 이미 崇拜하던 日, 月, 火, 風, 水같은 自然의大勢力들은 高等한神格들의 粗雜한表象으로 있던것으로 其것들을 基礎로하여 大神들이 發展되어 多神敎를 일으켰다. 그러나 國家的의宗教는 國家의事라 그 主 要中心이 官公的으로 認定된 國神의儀式에있다. 個人은 그禮拜에 個人으로 參與하는것이 아니라 한市民의資格으로서는것이오 그市民의宗教는 制定되고 強要된 것으로 禮拜의行爲를 適法이行하는것으로 滿足을삼는것이다. 個人의心中을 檢査하거나 그信念들을 試驗할志願은 적은 것이다. 이가답에 더思考的의이오 意識的인 宗教心의要求에도 不適當하였다. 文明한時期에 社會生活의 產物로서 人格의成長을 보게되고 性格의發展이 있게되었다. 따라서 宗教의內面的成長發展이 進行되는同時에 人은 漸次로 認定하기를 現存宗教가 自體發表에 使用하는 自然主義的의觀念들과 外面的行動들은 滿足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社會發展에依하여 靈的의經驗을 充滿하였는 優秀한人格과 創作力을가진 人物들이 보다 優勝한事物情勢

를 先見하였다. 그들은 自己들의 先見한바를 內面的的確
信을가지고 그時代의使信을삼아 傳播하였다. 이靈의運動
은 有効하게工作하여 大變動을나트켜 宗教의諸概念이漸
次로靈化되고 改造되야 世界的宗教의 基礎를일으켰다.
이것은 廣汎한 意味의先知者運動이니 그源泉이 天才있
고 靈感받은 個人들의敎訓에 있음으로크었다. 이先知人
物들은여러나라에 不同한時期에 出現하여 國家生活안
徐徐히 形成한要求와 熱望에對하여 明晰한發言을하였다
波斯의 조로에스터, 中國의孔子, 印度의佛陀, 主前八一六
世紀이스라엘의 諸豫言者를 希臘의 올림運動(彈琴의妙
能) 禽獸木石을 感動하였다는 古希臘의樂人 Orpheus의
名으로因한 秘密宗教又是敎理)과神祕宗教運動은 宗教를
改革하여 더內面的人格의이되게하는同時에 더 世界的이
되게하였다. 宗教의 內面的 主觀的方面을 強調한事實은
宗教의關係自體의 嶄新하고 深奧한觀念을 包含하였다.
神들과 或階級間에 肉體的親緣의이 있다는 舊概念과 神雜
種族或國家間에 自然的親緣이 있다는思想은 只今 粗雜하고
不當하게보았다. 人與神의關係는 既成事實이아니라實現될
靈의目的이다. 人의內面的精神에서 宗教의이 되는것인바
內面的精神이란 어떤特殊階級이나 民族의專有物이아니라
그리하여 古代의制限의 超越되나 信仰은 모든사람에게
可能하고 따라서 宗教는 高等型에서 活動으로 宣敎的
이오 主張으로 世界的이되였다. 一 種族이나 國家를爲한

宗教를代하여 全人類를爲한 宗教들이 作興하게되였다한다.
이와같은宗教進化的 路程記는 一見理然하고 또興味津
津하나 그全部가 事實을提示하는지는 크게 疑問이다.
두렵건대 그大部分이 進化論의先入見을가진 宗教學者의
奇抜한 想像의產物뿐이아닌가한다. 政治的合併이 宗教的
合併을 招來하거나 社會的發展이 宗教的發展을 可能케
하거나 한 實例가 얼마나있는지는 實로 疑問이다. 또
設或 그런實例가 間或있다고할지라도 그것을 一般化하
야 모든宗教에 一貫한原理로삼는것은 過激한論法이다.
種族種敎의 月, 火, 風, 水神이 國家宗教의大神들로 進
化하였다고하나 그物的證據를찾기는 容易치아니한것이다
新興先知者들의 說敎에依하여 國家的宗教가 世界的宗教
이로 進化하였다고斷言하나 宗教史의事實은 이斷言을全的
으로稱義하지 않는것이다. 그先知者들의多數는 退化한宗
敎를 改革하여 高等한舊宗教에로 還元시키려하였고 前無한
新宗教를 進化하여낸것이아니다. 孔子는 春秋戰國의亂世에
向하여 先王之法에의 還元을 說敎하였고 조로에스터는 多
神偶像을崇拜하는 波斯人에게向하여 最高一神信仰에의 還元
을 說敎하였고 舊約預言者들도 이와類似한趣旨의說敎를하
였다. 佛陀는 印度舊敎의腐敗에 抗議하여 新宗教를 樹立하
였으나 그神觀을 汎神論으로보면 그것은 實質的으로 印度
敎에의 還元이오 그것을 無神論이라고認定하면 그것은印度
敎로부터의進歩가아니라退步된것이다. 宗教의過程에局部的

進化를 있는 것이나 一般的進化라는 것은 過大한想像이다.

헤겔의 歷史哲學에依하면 絕對精神은 自己를開展하는 本質을有함으로써 現實世界的過程은 純粹히 論理的인 概念으로 發展하는데 그發展의階段은 (1)主觀(個人)의 (2)客觀(社會)의 (3)絕對(神)的의 三階段에分하고 絕對精神은 直觀으로서는 美學의對象이되고 表象으로서는 茲에 宗教를 成立케하고 最後에 概念으로서 哲學을構成한다.

(主觀精神論의 課題는 如何히하사 精神이 次第로 自然의拘束을 離脫하고 其本領인自由(依自態)를 開展하는가 를示함에있다. 初에 個人精神이 肉體其他自然的環象의支配를受하여 本能, 衝動, 情慾等에게 抑制되는 狀態로부러 漸次 發展하여 他人의自由를 承認하며 自己以上の의自由(放縱이라고云하는意味의)를 制限하여 自己以上の의意志, 即一般的意志에 服從함에 至하기까지의 辯證法的發展을 考察한다. 그런데 이一般的意志는 即 客觀的精神이다. 客觀的精神은 法, 道德或은 良心道德, 人倫或은 團體道德으로 開展하고 人倫은 又 家族, 社會, 國家의 三階段으로 開展한다. 國家, 家族, 社會에서 神의意志其者가 現한다. 그런데 國家의 種種의形의中에 立憲王制가理性的發展及實現의 最高段階요 其他의制度는 其前이階段. 絕對的精神은 藝術, 宗教, 哲學의 三階段으로開展한다. 三者共히 主觀精神과 客觀精神과의統一 此에依하여 精神은 비로소 完全히 自由(一切의矛盾으로부터)되고 自己스사로와 融和한다. 主觀 客觀表象과對象,

思惟와存在, 無限者와有限者의分裂은 止揚 Aufheben 되고

無限者는 有限者의本質로 認識된다. 但이 最高反對의融和 又는 有限者에於한 無限者의知識은 三型을取하여 現한다. 直觀의形을 取하는것은 藝術, 感情及表象의形으로 取하는것은 宗教, 思惟의形을 取하는것은 哲學이다. 그런데 絕對者는 「理」로 其發展은 論理的임으로 思惟의形을 取하는哲學은 가장 絕對者의本性에 合致하는것이며 從하여 理性發展의頂點이다. (若波哲學辭典) 그리고 헤겔은 다른모든것과같이 宗教도概念發達의 辯證法的過程의一契機도 看做하고 特殊의諸宗教는 絕對精神의 人間意識에서 示하는表象의階段이라고 論하였다. 그래서 宗教의發展하는 階段을본즉 第一階段은 神의觀念을 絕對的自

然力으로 認하고 人間은 이自然力에束縛되었다고 看做하는宗教이니 此를 自然宗教라고한다. 이範疇에屬한宗教는 庶物崇拜와 東方亞西亞의 諸宗教이다. 第二階段의 宗教는 神의觀念이 理性的精神 即 自由인 主觀性的形態로 理解되는것이니 猶太, 希臘, 羅馬의諸宗教가 此에屬하여 此를 精神의個體性的의 宗教라고한다. 第一階段과 第二階段의間에 波斯, 수리아, 埃及의諸宗教와같이 自由宗教에達하는 過度期의宗教가 設置된다. 最後의 第三階段은 絕對的宗教라고 稱하고 基督敎들이 範疇에屬하는 絕對的宗教라고 論하였다. 如此히 헤겔은 宗教를 絕對精神의實現 過程의中에서 解釋하고 宗教概念의發展이라고 하는 立場으로부터 各宗教에階段을 與하여 宗教史를發

達史的 又は 綜合的으로 構成시켰다. 헤겔의 歷史哲學은 絶對精神이 階段을 追하자 漸進的으로 開展하는 때의 個個의 宗教를 序列한다고說하여 一種의 進化論的 宗教史觀을 提出한 것이다. 『宗教哲學』의 著者 풀나이더러도 『宗教의 進化』의 著者 엔워드·케이트, 『發達過程에 있는 人間의 宗教意識』의 著者 하트만, 『神의 自意識으로서의 宗教』의 著者 드러비스 등은 헤겔의 歷史哲學에 基하여 諸宗教를 發達史的으로 序列하였다. 티일네의 『宗教史要論』에도 헤겔派의 影響이 보인다. 헤겔의 全哲學은 特別히 發展又是 進化의 哲學이었다 (Clement C. J. Webb: A History of Philosophy). 그의 宗教의 分類가 비록 論理的 歷史的 哲學에 依한다 하나 上述과 如히 進化論의 原理가 그 基礎를 構成한 것은 自然之勢이었다.

그러나 헤겔派의 所論에 依하면 헤겔의 歷史哲學에 準據한 宗教史는 人類思想의 開發의 根底를 哲學의 原理에 基礎케 하고 人類의 歷史的 過程으로서 이 原理의 開展이라고 看做한故로 헤겔의 宗教史는 헤겔哲學의 說明이요 決코 事實을 事實으로 研究한 正史는 아니다. 따라서 彼의 宗教史觀은 彼의 論理哲學에는 適合하나 純粹의 意味에서 科學的은 아니었다. 元來 各種의 宗教의 眞理性은 헤겔의 提唱한 바와 같은 簡單한 特質의 概念에 依하여 代表될 것인가? 複雜한 教理上 內容을 有함과 共히 반드시 宗教的이 아닌 歷史的 境遇의 下에 多樣多岐로 發展한 歷史的 宗教는 果然 彼가 規定한 論理的 分類로 區別되어 있을 것인가? 言念及 此에 헤겔의 歷史哲學及 同派의 宗教史에는 理論과 史實

과에서 幾多의 疑問과 矛盾이 存함을 우리는 認定치 아니치 못한다 (此處 根安定著 世界宗教史 八〇—八二頁).

宗教를 進化論的으로 發達史的으로 序列하던는 試圖는 失敗에 終焉할 수 밖에 없다. 或者는 胸中에 進化의 原理를 품고 임으로 科學의 方法을 標榜하나 成功이 別無함은 宗教란 것은 自然界의 現象이 아니라 精神界에 屬한 事件이니 만치 科學의 研究의 對象이 잘되지 않는緣故이다. 헤겔의 論理的 歷史的 哲學은 精神界의 事件의 理解에 좀더 賢明하면 된다 亦是 宗教의 歷史的 過程을 事實로 말하지 못할의 暴露되었다. 티일네는 『大英百科全書』에서 科學에 基礎하여 宗教를 分類하고 原始의 自然論과 아니미즘과 國民의 多神教와 儀式의 宗教와 普遍的 宗教의 諸階段을 設하였으나 後年 『宗教學原論』에서 是 進化的 過程의 觀念下에 宗教를 分類하기 困難함을 看破하여 宗教를 自然的 宗教와 倫理的 宗教로 區分하고 自然的 宗教를 高等과 下等으로 區分하였다. 합킨스는 宗教를 配置한 것이 있어서 進歩의 次序에 關한 誤謬를 避하라는 忠告를 말하여 일오기를 『또는 宗教의 退步를 計算이 너치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宗教는 事實上 高等한 宗教의 하나이었으며 漸漸衰退함을 따라 그以前狀態를 全然 떠나서 單純한 精神崇拜教로 墮落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偶然한 證據가 誤解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The History of Religion, 1918, P. P. 101). 그래서 諸宗教의 論理的關係와 發生史의 過程을 不願하고 全히 歷史的으로 存在한 그대로 個個의 諸宗教를 研究코치하는 幾多의 宗教史家가 輩出하였다.